

농촌회생 · 식량자급 · 새 삶 추구 위한 귀농돼야

무작정 귀농 서로에 도움안돼, 현실적 · 실질적 정부지원 있어야

안영철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국장

농림부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IMF영향을 받은 올해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다. 농촌인구가 줄어들어 농촌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고, 장기적으로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귀농은 농촌의 회생과 식량자급,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삶의 추구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귀농운동본부로 귀농을 문의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귀농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농촌에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촌은 단지 가기만 하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약속의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생만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곳도 아니다. 사전에 귀농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귀농할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귀농희망자

연도별 귀농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 귀농한 가구는 3백71호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7천8백23호로 늘어났고 IMF관리체제를 맞은 1998년도에는 1월 2백3호, 2월 3백83호, 3월 6백98호로서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98년중 4~5천가구가

귀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의 동기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나 환경적인 측면 등 다양하다. 귀농자들은 대부분 자녀교육문제나 의료여건의 미비, 문화적 여건 미비 등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며,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영농자금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영농상의 애로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튼튼한 정착을 위하여

요즘도 하루에 10여건 남짓 귀농본부로 귀농을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그중 대부분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귀농을 하고 싶

연도별 귀농가구수

(단위:호)

구 분	90	91	93	94	95	96	97	98			합계
								1월	2월	3월	
가구수	371	299	413	618	922	2,060	1,823	203	383	698	8,452

다는 것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현대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가의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1천3백만원에 달하는 오늘날의 농촌에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를 이룩한 분들의 노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가 귀농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점에 특히 주목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정부정책도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농림부의 21세기 비전을 살펴보면 주곡의 안정기반 구축과 가족농 중심의 규모화,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의 육성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현재 30%를 밑돌고 있고, 세계적인 후변화로 인해 식량생산 감소

가 예견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농림부의 환경농업 육성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귀농은 단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도시에서는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귀농은 삶의 양식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사무실에 서가 아닌 논·밭에서 일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도시와는 달리 더불어 정을 나누고 일도 함께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도시에서는 문화생활은 놀이시설이나 극장, 운동

장 등 직접 참여보다는 간접적으로 즐기며 이를위한 비용 지출이 당연하지만, 농촌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며,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한다.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의 큰 고민중의 하나가 자녀들 교육이다.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의 부족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농촌만큼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없다. 이웃과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사회적으로는 대안학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뜻을 펴는 20~30년 후에는 입시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견된다. 그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며, 사회성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될 것이다.





귀농자들은 대부분 자녀교육문제나 의료여건의 미비, 문화적 여건 미비 등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며,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영농자금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영농상의 애로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생각한다면 주위가 온통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농촌은 그 어떤 고급시설 보다 나은 최고의 교육시설일 것이다.

무작정 귀농은 귀농자 뿐만 아니라 귀농했던 지역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친다. 귀농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귀농지 선정이나 주택마련, 농지구입(임대)을 해야한다. 작물선정이나 키우는 방법은 귀농해서 지역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다양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이농을 하면 개인적으로 심한 자책감을 갖게 되지만, 지역에 계신분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지원

귀농자를 위한 정부지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교육과 정착자금 지원이 그것이다. 교육은 귀농희망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착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을 연 6.5%, 2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 지원하는 규모가 작고, 횟수도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실업자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은 노동부에서 그 주무부처를 담당하고 있어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4~5천만원을 설정하고 있는 귀농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의 경우 실제 시행에 있어서 그 조건으로 전가족이 귀농을

해야한다거나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문제로 자녀가 도시에 남아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한 20~30대가 귀농자의 50%를 넘고 있어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상당수가 지연연고가 없이 귀농한 사람들이어서 보증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귀농이후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이다. 귀농인의 정착기간으로 3~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귀농자를 위한 방안 뿐만아니라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조정과 제도가 필요하다. 생산비용을 낮출수 있고 생산된 농산물이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유통개선은 농민들의 경제적인 안정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가격을 통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급증하는 귀농자들이 농촌에 튼튼하게 정착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농촌의 회생과 자립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였다. 이를 위한 귀농자 개인의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귀농정책의 정립을 통한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농업의 실현이 이 시대 우리의 과제이다. **농약정보**